

통일의 어버이

통일의 어버이

주체91(2002).2


《…나는 조국을 통일하고 통일된 조국을
우리 인민들에게 반드시 선물로 주려고
합니다.》
김정일





〔주체85(1996)년 11월〕
조국을 통일할데 대하여 말씀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판문점에 건립된 위대한 수령님의 통일친필비를 찾으시여 하루빨리

7천만 온 겨레가 심장을 합쳐 태양의 존함으로 높이 부르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그이는 애국애족의 뜨거운 정과 넓은 포옹력, 숭고한 의리로 민족성원모두를 따뜻이 안아 보살펴 주시는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이시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언제나 남녘겨레들을 잊지 않으시고 뜨거운 동포애의 정을 아낌없이 부어 주고 계신다.

창밖에 비가 많이 내려도 남녘의 동포들을 걱정하시여 잠 못 드시고 조국의 명산을 보시고 한편의 노래를 들으시면서도 남녘의 형제들을 그리시며 마음 쓰시는 위대한 어버이

김정일장군님!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 열화 같은 인정의 세계는 얼마나 많은 사랑의 화폭들을 펼쳐 놓았던가.

그 화폭들마다에는 큰물피해를 입은 남조선수재민들에게 막대한 량의 구호물자를 보내주신 크나큰 은정을 비롯하여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수없이 담겨 져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남조선의 각계층 애국인사들은 물론 지난 날 나라와 민족앞에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일지라도 오늘날 통일애국의 길에 들어 섰다면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한품에 안아 참된 삶의 길로 손 잡아 이끌어 주신다.

위대한 어버이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우리 겨레에게 주실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조국통일이라고 하시며 넓으신 포용력과 무비의 대용단으로 력사적인 평양상봉을 마련하시여 우리 민족의 앞길에 조국통일의 밝은 전망을 열어 주시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애국애족의 자애로운 손길은 해외동포들에게도 뜨겁게 닿아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조국을 떠나 멀리 있는 해외동포들의 친어버이가 되시여 그들이 조국에 찾아 올 때면 누구보다 반갑게 맞아 주시고 함께 즐거운 시간도 보내시며 주실수 있는 온갖 사랑과 은정을 다 안겨 주신다. 자연재해를 입은 재일동포들에게 수많은 위문금을 보내주시고 나라가 어려움을 겪던 그 시기에도 재일동포자녀들에게만은 변함없이 사랑의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신분도 어버이장군님이시였으니 정녕 그이는 해외동포들의 운명과 미래의 구세주이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은 숭고한 도덕의리심을 지니시고 통일애국에 바친 렬사들의 삶을 영생으로 빛내주시는 민족의 대성인이시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통일애국투사들이 조국통일을 위해 싸우다 희생되였을 때에는 누구보다 가슴 아파 하시며 추도식도 엄숙히 거행하도록 하시고 그들의 이름이 후세에 길이 전해 지도록 하시였으며 그 자녀들의 운명과 미래까지도 다 맡아 보살펴 주신다.

어찌 그뿐이랴.

사랑과 의리의 화신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열화 같은 동지애에 의하여 신념과 의지의 강자 비전향장기수들도 사회주의조국의 품으로 돌아 와 인생의 봄을 다시 맞이할수 있었다.

정녕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령도자도 많지만 우리의 **김정일**장군님처럼 사랑과 인덕을 천품으로 지니시고 온 겨레를 뜨겁게 품어 안아 주시는 위대한 민족의 어버이는 없다.

7천만 겨레의 어버이이시며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계시여 바야흐로 통일의 새 아침은 밝아 오고 있다.

편집부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조국통일을 위하여 바쳐 오신 크나큰 심혈과 뜨거운 사랑을 보여 주는 화폭들가운데서 일부를 묶어 세상에 내놓는다.

편집부



애국애족의 뜨거운 정, 넓으신 포용력으로

《분렬된 조국땅에서 사는 참된 애국자는 남녘동포들을 항상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남녘동포들의 고통을 외면한 참된 애국이란 있을수 없습니다.》

김 정 일



조국통일은 우리 겨레에게 안겨 줄 최상의 선물이라 하시며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쳐 가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주체77(1988)년 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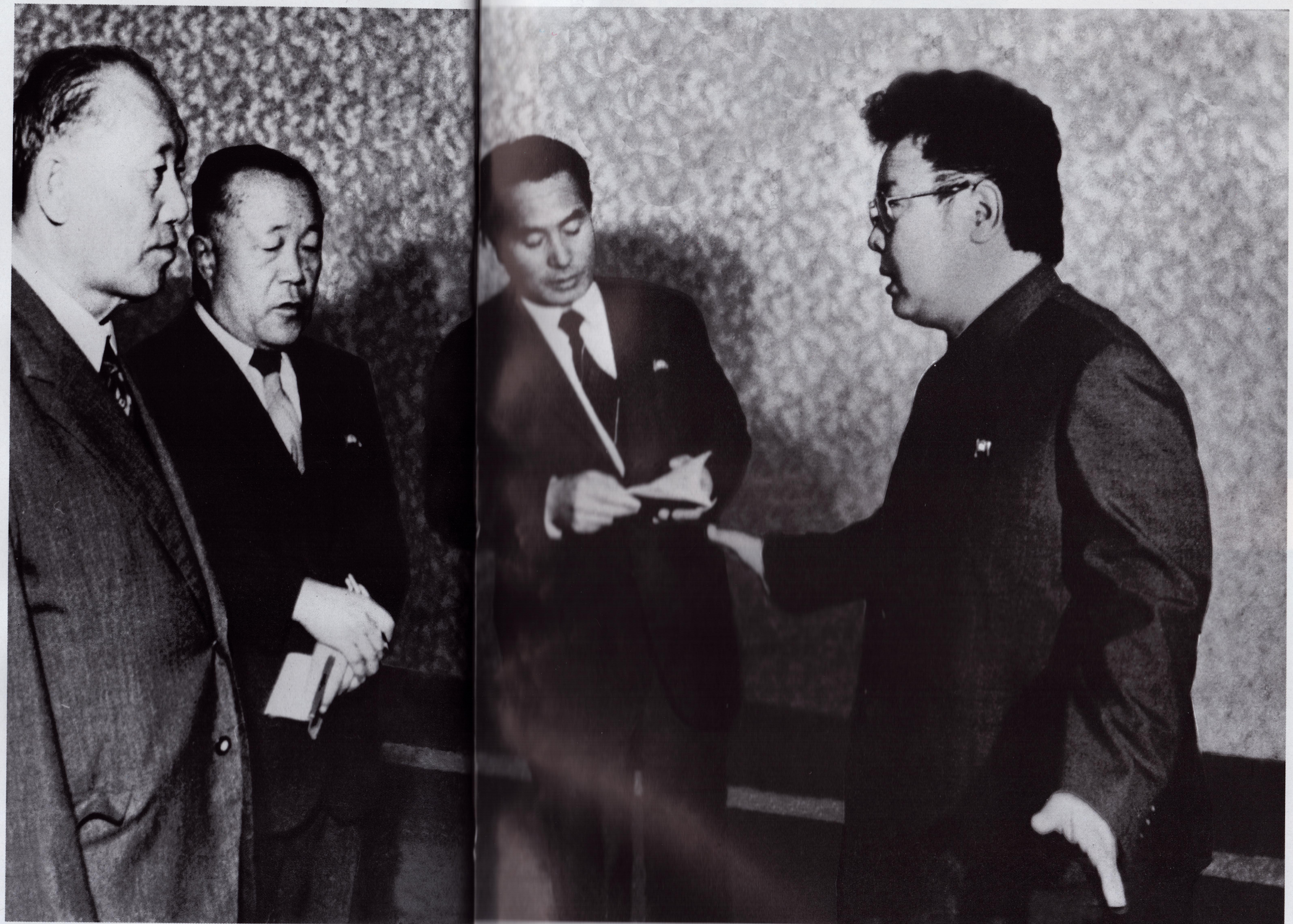
주체73(1984)년 9월 남녘땅에 참혹한 큰물피해가 났다.

바로 이러한 때 행복에 웃는 자식보다 불행에 우는 자식에게 더 마음 쓰는 친어버이심정으로 은혜로운 구원의 손길을 펼치신분은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시였다.

어버이장군님께서는 남조선수재민들에게 보내는 구호물자를 비가 온다고 하여 늦추어서는 안된다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제정된 기일안에 무조건 넘겨 주어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 말씀에는 한지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남조선수재민들에 대한 한없이 뜨거운 동포애의 은정, 남녘겨레들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는 어버이사랑이 맥박치고 있다.

남조선수재민들에게 보낸	
구 호 물 자	
쌀	5만석
천	50만m
세멘트	10만t
많은 량의 의약품	



남조선수재민들에게 구호물자를 하루속히 보내줄데 대하여 말씀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주체73(1984)년 9월〕



개성시민들의 환호를 받으며 남행길에 오른 구호미수송대

남조선 경기도 파주군 군내면 대성동의 구호미하차장





남조선수재민들에게 보내는 지성어린 구호물자 세멘트를 싣고 남포항을 떠나는 대형화물선

형형 다채 포장된 구호물자를 싣고 남조선의 하차장에 도착한 화물자동차들





위대한 수령님께서 통일의 사절인 문익환목사를 접견하신 사진과 기사를 실은 남조선의 신문 《한겨레》를 보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주체78(1989)년 4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문익환목사의 부인 박용길녀사를 만나주시고 동포애의 정 넘치는 따뜻한 담화를 나누시였다. 〔주체84(1995)년 7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주체84(1995)년 7월 8일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기념궁전의 력사적준공을 세상에 선포하는 행사에 나오시여 남조선에서 온 문익환목사의 부인 박용길녀사를 친히 만나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큰절을 올리는 그를 다정히 일으켜 세워 주시며 이렇게 만나니 정말 반갑다고, 고령의 몸으로 어버이수령님의 령전을 찾아 어려운 길을 와주어 고맙다고, 모처럼 온김에 평북어머님의 묘소도 찾아 뵙고 쉬염쉬염 명승지도 돌아 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면서 온갖 사랑과 은정을 다 안겨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을 추모하기 위하여 평양에 온 문익환목사의 부인 박용길녀사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주체84(1995)년 7월〕



만경대고향집을 방문하는 박용길녀사



백두산밀영고향집을 찾은 박용길녀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김대중대통령과 상봉하시였다. 〔주체89(2000)년 6월〕

21세기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주체89(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력사적인 평양상봉을 마련하시였다.

나라가 분렬되여 55년만에 이루어 진 력사적인 평양상봉은 동포애의 정을 나누고 민족의 혈맥을 잇는 일이라면 그 어떤 일도 서슴없이 해야 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길에서는 조금도 주저할 필요가 없다는 그이의 애국애족의 대용단이 낳은 력사적사변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김대중대통령과 악수하시고 인사를 나누시였다. 〔주체89(2000)년 6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과 함께 김대중대통령은 조선인민군 륙해공군 명예위병대를 사열하였다.
〔주체89(2000)년 6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김대중대통령과 숙소까지 동행하시고 숙소에서 담화하시였다.〔주체89(2000)년 6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김대중대통령이 차린 연회에 참석하시여 담화하시였다.
〔주체89(2000)년 6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김대중대통령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주체89(2000)년 6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김대중대통령과 함께 북남공동선언에 서명하시였다. 〔주체89(2000)년 6월〕

북 남 공 동 선 언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념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국방위원장과 대한민국 김대중대통령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력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최고위급회담을 가지였다.

북남수뇌들은 분단력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리해를 증진시키고 북남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사변적인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북과 남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북과 남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북측의 낮은 단계의 련방제안과 남측의 련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북과 남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북과 남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북과 남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안에 당국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대통령은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서울을 방문하시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는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대한민국 대통령
김 정 일	**김 대 중**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김대중대통령과 작별의 악수를 나누시였다. 〔주체89(2000)년 6월〕

남녘땅에 울려 퍼진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칭송의 목소리





남조선출판물들에 모셔 진 위대한 장군님의 존귀하신 영상사진들

《통이 크고 호탕하며 모든것에 환하시고 정치적지도력이 뛰여 나신분》

(《문화관광부 장관》)

《특수한 인격을 갖고 있었고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합리성, 지도력, 식견 등을 갖추고 있었다.》

(《청와대》 비서관)

《보조개 패인 웃음을 지으시고 롱담을 던졌던 **김정일**국방위원장이시야말로 가장 충격적이고 매력적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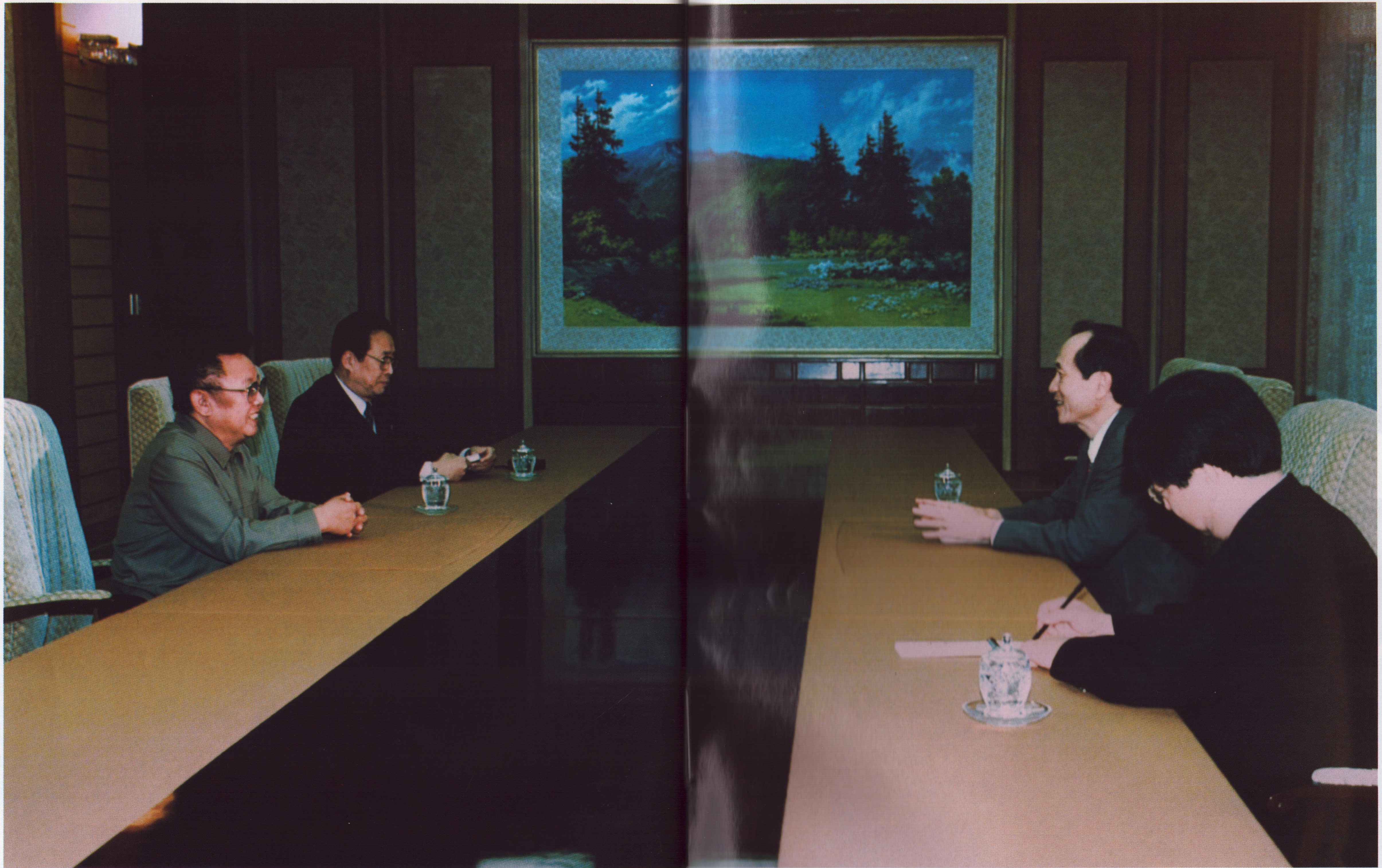
(《관동대학교》 교수)

《정상회담중의 최대화제는 단연 <인간 **김정일**위원장>이였다. 서민들과 중고등학생들은 뻐스안에서, 떡볶이집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김정일**위원장에 대한 화제로 꽃을 피웠다.》

(잡지 《말》)

《너무 감격했으며 **김정일**국방위원장이 진실로 솔직한 마음으로 성의를 다해 줘 깊은 인상을 받았다.》

(《리화녀자대학교》 총장)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제2차북남상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를 접견하시였다. 〔주체89(2000)년 9월〕



평양에서 진행된 제2차북남상급회담(우)과 제4차북남상급회담(아래)





제1차북남전력협력분과회의



제1차림진강수해방지분과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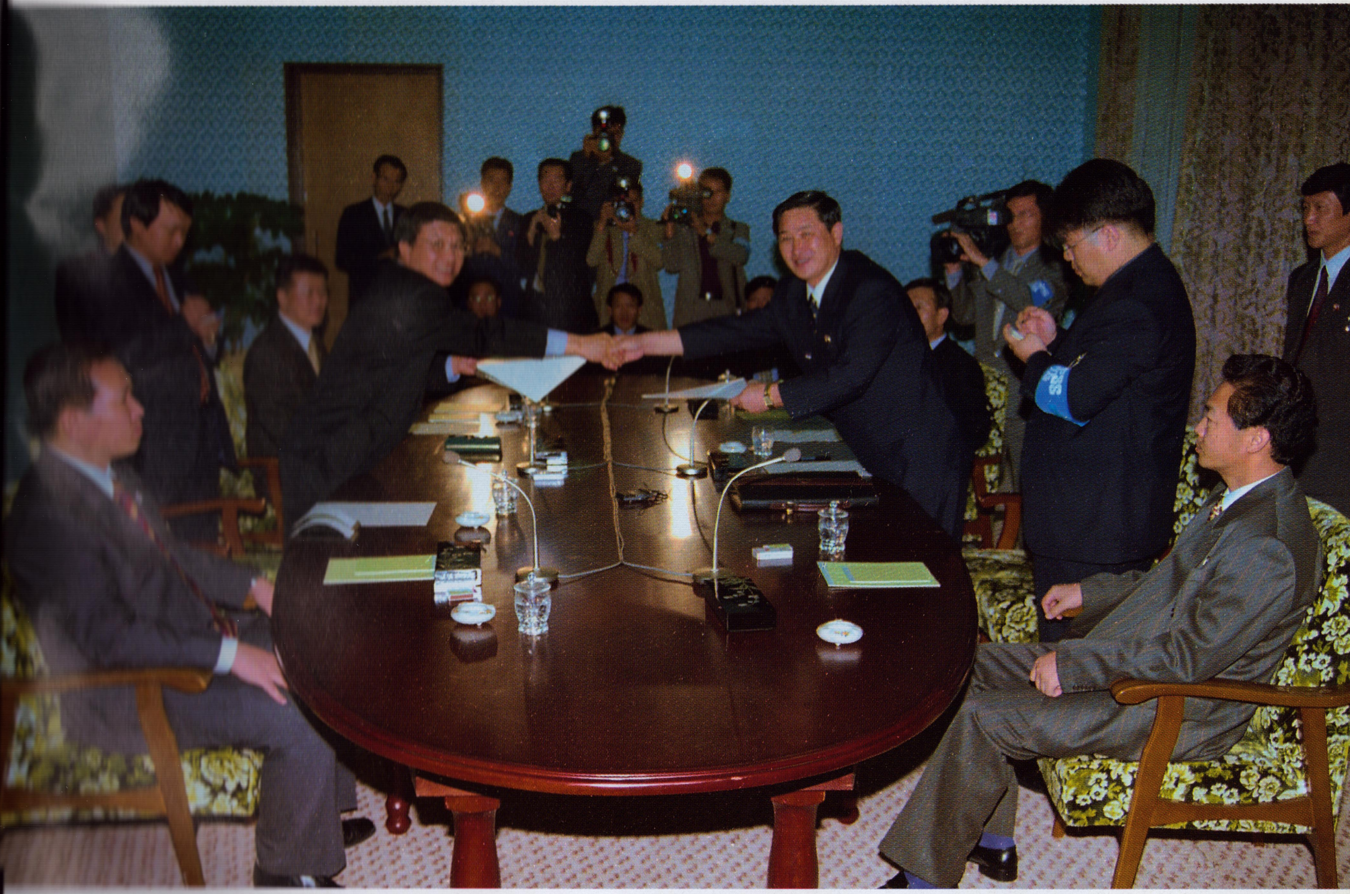
금강산에서 진행된 6.15북남공동선언 지지관철을 위한 북남로동자통일대토론회



금강산에서 개막된 북남농민통일대회



금강산에서 진행된 6.15북남공동선언 발표 1돐기념 민족통일대토론회



제2차북남적십자회담



평양에서 혈육들과 감격적인 상봉을 하는 남측고향
방문단 성원들





주체74(1985)년 가을 민족분단 40년만에 처음으로 북과 남의 예술인들과 고향방문단 성원들이 분렬의 장벽을 넘어 평양과 서울을 오가는 민족적 사변이 마련되였다.

분렬된 민족의 아픔을 그 누구보다도 깊이 헤아리시고 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민족애와 동포애에 의하여 마련된 경이적인 현실앞에서 온 겨레는 **김정일**장군님이시야말로 통일의 어버이이시라며 격정을 터뜨렸다.



평양에서 막을 올린 남측예술단의 공연 일부

6·15북남공동선언에 따라 북측 흩어진 가족, 친척방문단 성원들 서울에서 혈육들과 상봉







6·15북남공동선언에 따라 남측 흩어진 가족, 친척방문단 성원들 평양에서 혈육들과 상봉









평양비행장에 도착하여 시민들의 동포애적인 열렬한 환영을 받는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할 남측 대표들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앞에서 성대히 열린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남조선현대그룹 정주영명예회장을 만나 주시였다. 〔주체87(1998)년 10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남조선현대그룹 정주영명예회장가족일행을 접견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주체87(1998)년 10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주체87(1998)년 10월 30일 남조선현대그룹 정주영명예회장을 만나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뵙고 싶어 하는 그의 간절한 소망을 헤아리신 장군님께서는 고령의 불편한 몸인 그를 찾아 오게 해서야 되겠는가고 하시며 몸소 정주영명예회장의 숙소를 찾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을 위한 그의 애국적소행을 높이 평가하시고 요청하는 문제들을 다 들어 주시였으며 그의 소원대로 가족일행을 만나시고 기념사진까지 찍어 주시는 은정 깊은 사랑을 베푸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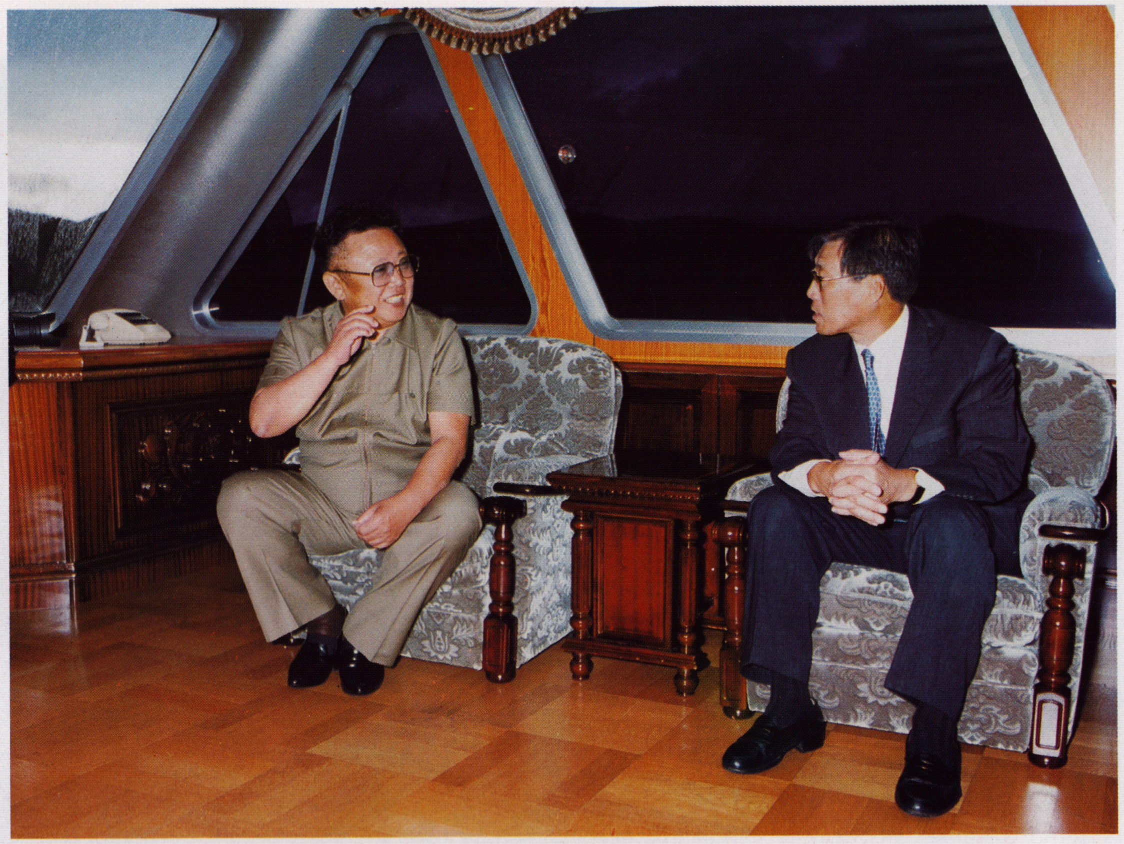


〔주체88(1999)년 10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남조선현대그룹 정주영명예회장과 정몽헌회장을 접견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남조선현대그룹 정주영명예회장과 따뜻한 담화를 나누시였다. 〔주체89(2000)년 6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남조선현대아산 정몽헌 회장을 만나주시였다. 〔주체89(2000)년 6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남조선현대아산 정몽헌회장과 일행을 접견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주체89(2000)년 8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금강산관광지구를 시찰하시는 현지에서 남조선현대아산 정몽헌회장과 그 일행의 영접을 받으시고 그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주체89(2000)년 10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고 정주영선생의 령전에 보내신 화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정주영선생의 사망과 관련하여 파견하신 조의대표단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남조선현대그룹 전 명예회장 정주영선생의 사망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시여 주체90(2001)년 3월 22일 고인의 유가족들에게 조전을 보내신데 이어 24일에는 조의대표단을 통해 고인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주시였다.





고 정주영선생을 추모하는 현대아산 평양분향소



남조선현대그룹 정주영명예회장이 보내온 소와 화물자동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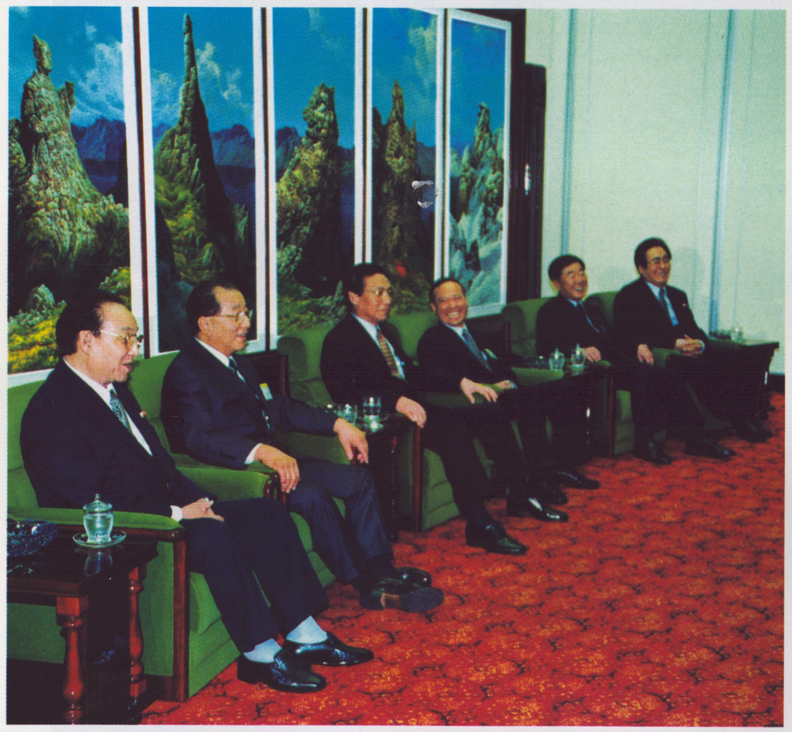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주체89(2000)년 8월 12일 평양을 방문한 남조선언론사대표단을 접견하시고 그들과 따뜻한 담화를 나누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석상에서 대표단성원들이 올리는 질문을 너그럽게 받아 주시고 그에 명쾌한 해명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대표단성원들과 찍은 기념사진을 함께 보아 주시고 오찬도 마련해 주시며 동포애적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남조선언론사대표단 성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주체89(2000)년 8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남조선언론사대표단 공동단장, 부단장들과 담화를 나누시였다.〔주체89(2000)년 8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남조선언론사대표단 성원들과 동포애의 정 넘치는 따뜻한 말씀을 나누시였다. 〔주체89(2000)년 8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남조선언론사대표단 성원들이 관심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명쾌한 해명을 주시였다. 〔주체89(2000)년 8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남조선언론사대표단 성원들과 찍으신 기념사진을 그들과 함께 보시였다.〔주체89(2000)년 8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남조선문화관광부 장관과 대표단수행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주체89(2000)년 8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남조선 《한국일보》 사장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주체89(2000)년 8월〕



평양지하철도를 참관하는 남조선언론사대표단 성원들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를 참관하는 남조선언론사대표단 성원들





만수대창작사를 참관하는 남조선언론사대표단 성원들

민족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주체89(2000)년 9월 11일 추석을 계기로 남조선의 각계 인사들에게 칠보산의 첫물 송이버섯을 선물로 보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첫물 송이버섯에는 남조선의 각계 인사들과 동포들에게 민족의 향취를 느끼게 하시려는 그분의 깊은 뜻과 숭고한 동포애의 정이 어려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위임에 의하여 송이버섯선물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박재경대장이 남측에 전달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일본에 있는 남조선가수 김련자일행을 만나주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주체90(2001)년 4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주체90(2001)년 4월 11일 지방현지지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제19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에 온 일본에 있는 남조선가수 김련자일행을 친히 접견하시고 그의 공연을 보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섬세하고 특색 있는 노래형상으로 민족의 풍만한 정서가 흘러 넘치는 가요들을 잘 불러 우리 인민들을 기쁘게 하여 준 그를 치하해 주시고 은정 넘친 따뜻한 말씀을 나누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일본에 있는 남조선가수 김련자일행을 접견하시였다. 〔주체90(2001)년 4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일본에 있는 남조선가수 김련자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주체90(2001)년 4월〕



경애하는 어버이 김정일장군님께 민족의 풍만한 정서가 흘러 넘치는 가요들을 잘 불러 기쁨을 드린 김련자가수의 공연 일부





평양고려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가지는 서울전통음악단 대표들

《90송년음악회》에서 북의 예술인들과 함께 통일의 노래를 부르는 남측예술인들





서해갑문을 참관하는 남조선예술인들

평양에서 진행된 세계평화련합의 《리틀 엔젤스》예술단 공연의 일부





평양에서 열린 통일탁구경기대회

평양에서 진행된 통일롱구경기에 출전한 북과 남의 선수들





북과 남의 선수들
관중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통일축구경기에 출전하는



평양의 5월1일경기장에서 성황리에 진행된 북남통일축구경기대회



멀리 있는 동포들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우리는 통일을 념원하는 사람이라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과거생활이 어떠하건 관계없이 그 누구와도 손을 잡고 민족통일의 대업을 성취해나갈것입니다.》 **김 정 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총련결성 35돐 재일조선인감사단을 접견하시였다. 〔주체79(1990)년 5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한덕수의장을 만나주시였다. 〔주체77(1988)년 9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총련중앙상임위원회 한덕수의장과 따뜻한 담화를 나누시였다. 〔주체77(1988)년 9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총련중앙상임위원회 한덕수의장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정은 실로 끝이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가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할 때마다 친히 만나시여 즐거운 시간도 함께 보내주시였고 로당익장하여 조국통일과 총련애국사업에 헌신하도록 크나큰 믿음과 은정을 베풀어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가 병환으로 앓고 있을 때에는 조국의 이름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시고 진귀한 보약들도 보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 사랑, 이 은정이 그대로 장생불로의 명약이 되여 한덕수의장은 90고령에 이르기까지 조국통일과 해외교포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갈수 있었다.



〔주체75(1986)년 12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조국통일과 애국사업에 헌신하고 있는 총련간부들과 담화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리계백부의장을 만나주시였다. 〔주체74(1985)년 5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리진규 제1부의장을 만나주시였다. 〔주체78(1989)년 4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서만술부의장을 만나주시였다. 〔주체84(1995)년 10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총련중앙상임위원회 허종만책임부의장을 접견하시고 담화를 나누시였다. 〔주체89(2000)년 3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총련중앙상임위원회 허종만책임부의장을 동행자라고 하시며 주실수 있는 사랑과 믿음을 다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가 조국에 찾아 올 때면 바쁘신 시간도 뒤로 미루시고 친히 만나시여 그의 생활과 건강에 이르기까지 따뜻이 보살펴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의 생일 60돐때에는 가족과 함께 조국에 와서 생일을 크게 쇠도록 하여 주시고 식사도 함께 나누시며 어버이의 뜨거운 정을 아낌없이 부어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총련일군들을 만나주시였다. (주체81(1992)년 4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주시였다. 〔주체85(1996)년 1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박정현고문을 만나주시였다. 〔주체75(1986)년 12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축하방문하여 온 재일본조선인축하단과 기념
사진을 찍으시였다. 〔주체81(1992)년 4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새로 조업한 애국천연색텔레비존수상기조립공장을 돌아 보시였다.
〔주체81(1992)년 2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새로 무은 대형화객선 《만경봉92》호를 돌아 보시였다. 〔주체81(1992)년 4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재일조선상공인 안상택을 만나주시였다. 〔주체80(1991)년 4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재일조선인예술단 성원들을 만나주시였다.
〔주체81(1992)년 4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재일조선인예술인이 드리는 꽃다발을 받으시였다. 〔주체81(1992)년 4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축하방문하여 온 재일본조선상공인축하단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주체81(1992)년 4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한신대진재 피해동포들에게 위문금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재일본조선인 중앙대회



은혜로운 아버지장군님께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모임을 가지는 일본 도꾜 제3초급학교 학생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주체90(2001)년 4월에 또다시 총련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보내신 교육원조비와 장학금

2억 4,660만엔(일본돈)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하여 보내신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은 이번까지 147차에 걸쳐 일본돈으로 446억 396만 3,000엔에 달한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혜로운 사랑속에 총련애국위업의 계승자로 믿음직하게 준비해 가고 있는 조선대학교 학생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축하방문하여 온 《범민련》 재중조선인축하단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주체81(1992)년 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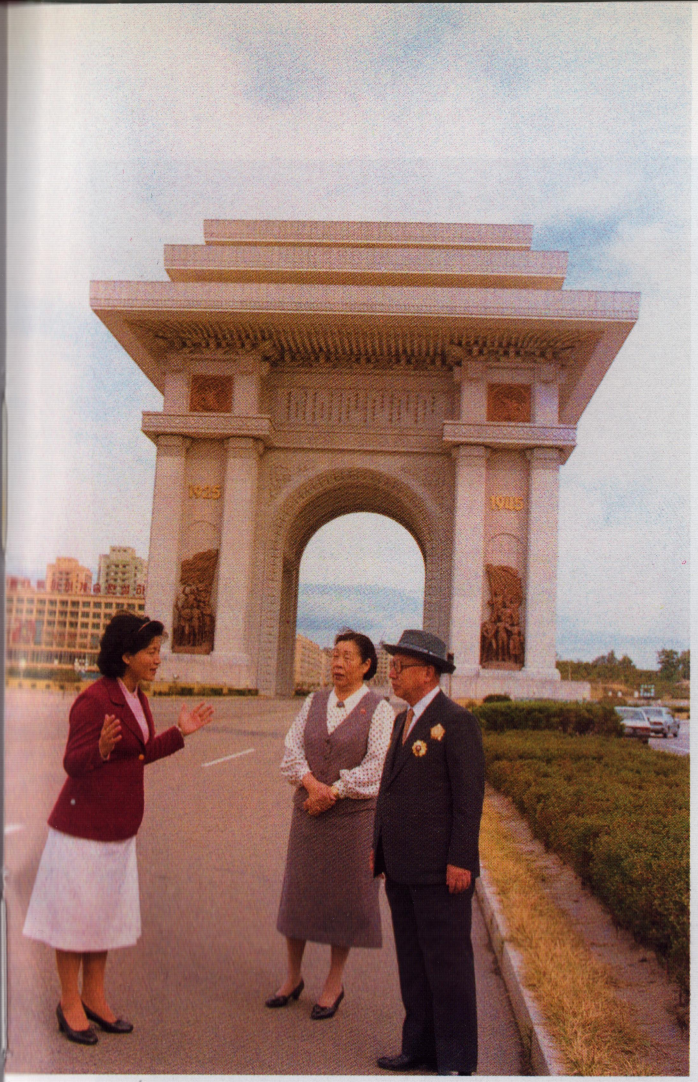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축하방문하여 온 조선통일촉진위원회(아쏘크)
축하단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주체81(1992)년 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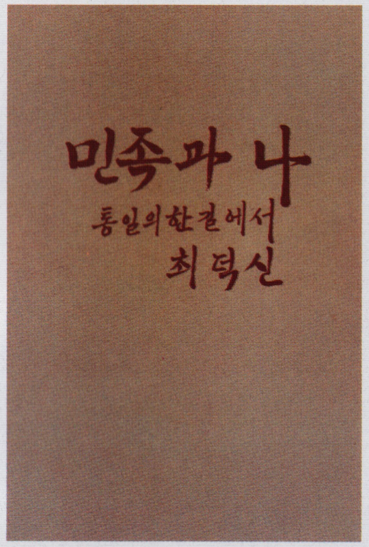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축하방문하여 온 전 쏘련지역 조선인로병회
대표단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주체81(1992)년 4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최덕신선생을 만나주시였다. 〔주체76(1987)년 4월〕



개선문을 돌아 보는 최덕신부부



최덕신선생이 사회주의조국에 영주하여 집필한 책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사업하고 있는 최덕신선생(1989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배달신보》발행인이며 국제태권도련맹 총재인 최홍희선생을 만나주시였다.〔주체81(1992)년 4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국제태권도련맹 최홍희총재를 접견하시고 따뜻한 담화를 나누시였다.〔주체89(2000)년 10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국제태권도련맹 총재인 최홍희선생에게도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을 뵙고 싶어 하는 그의 간절한 소망도 풀어 주시고 태권도로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에 이바지하려는 그의 소행도 적극 지지하여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가 조국에 찾아 올 때면 불편없이 생활하도록 깊은 관심을 돌려 주시고 생일상도 차려 주시는 등 온갖 사랑과 은정을 다 베풀어 주시였다.



인민대학습당을 참관하는 국제태권도련맹 최홍희총재



개성학생소년궁전을 참관하는 국제태권도련맹 최홍희총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재미교포 림창영선생을 만나주시였다. 〔주체81(1992)년 4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축하방문하여 온 림창영선생일행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주체81(1992)년 4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축하방문하여 온 재유럽조선인축하단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주체81(1992)년 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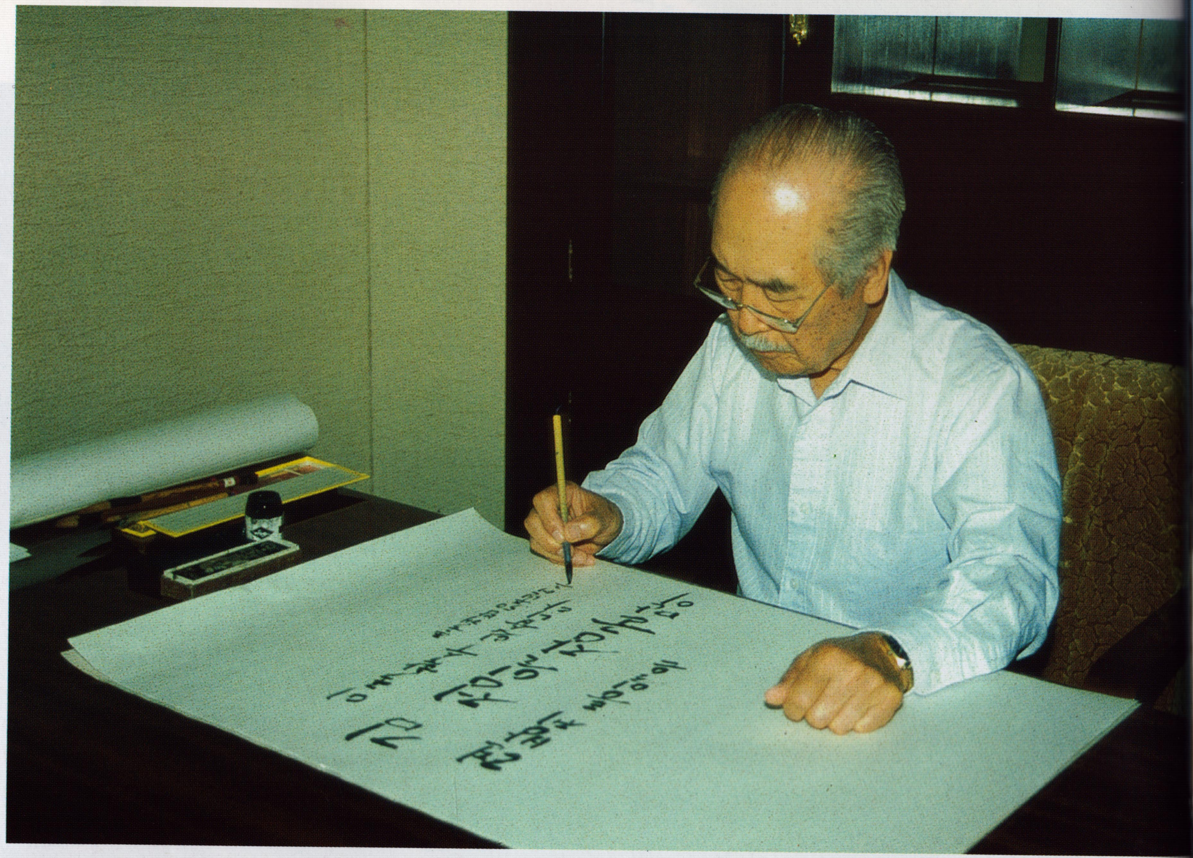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장군님께서 재미녀류기자 문명자녀사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주체89(2000)년 6월〕



판문점에 있는 정전담판회의장을 찾은 문명자녀사



단군릉을 참관하는 문명자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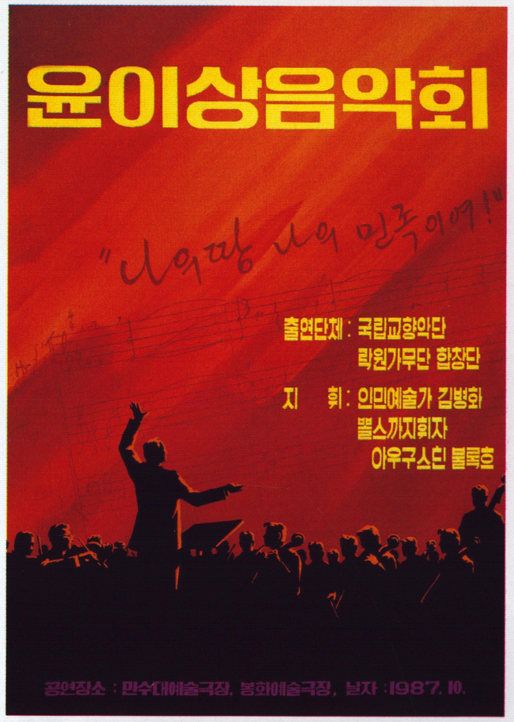
다함 없는 흠모의 정을 안고 위대한 장군님을 칭송하는
글을 쓰는 재미교포 선우학원선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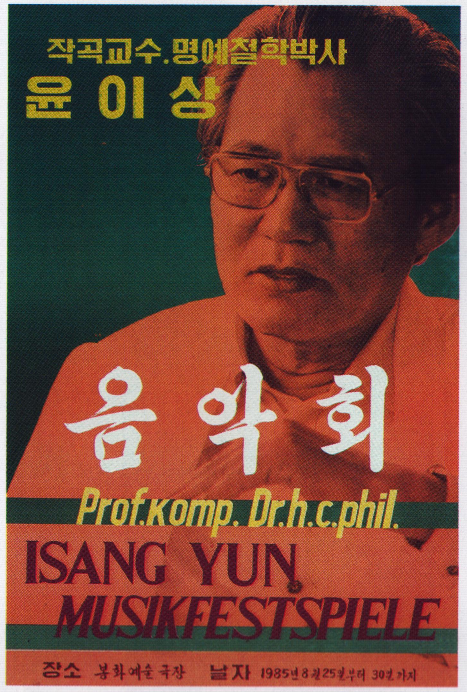


서예 《천세만세 받들자 김정일장군》을 남기는
재카나다교포 전순영선생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관심속에 현대적설비를 갖추고 웅장하게 일떠선 윤이상음악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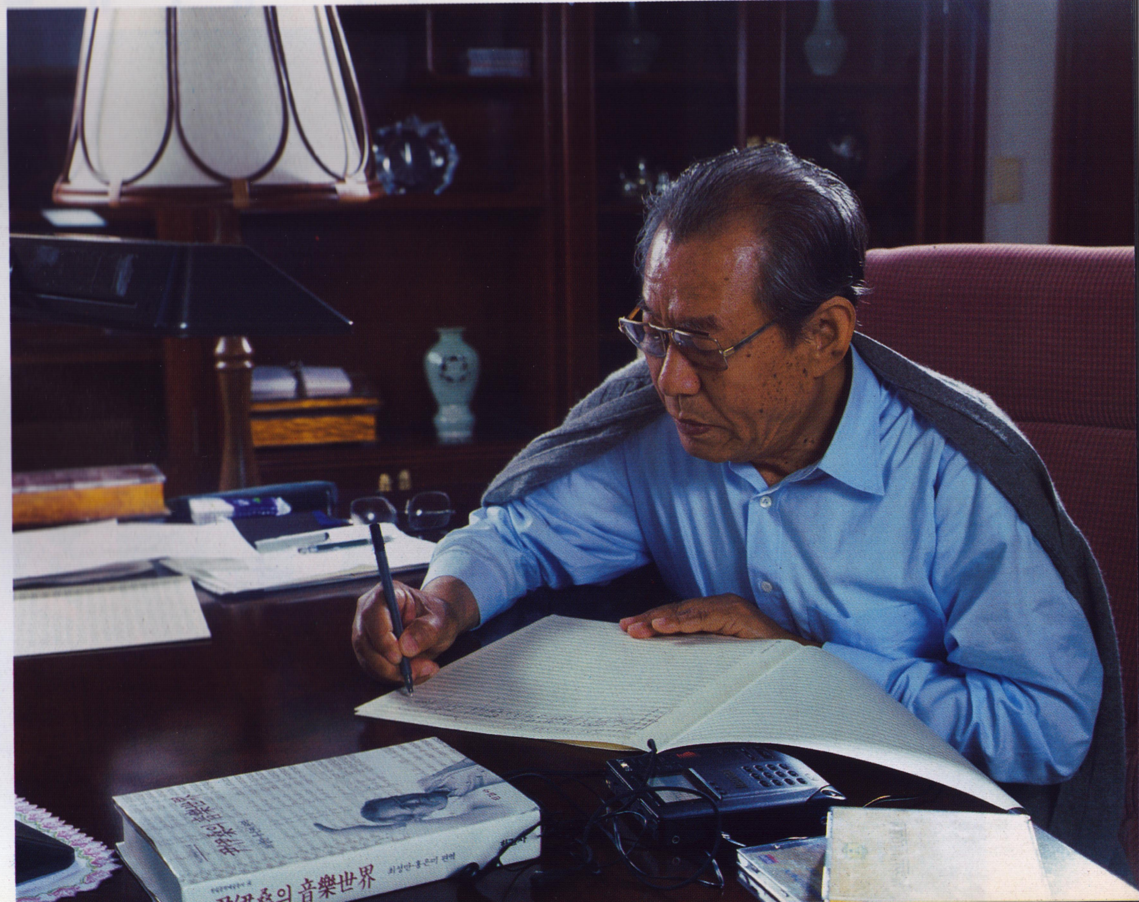
윤이상음악회를 소개한 선전화들

제16차 윤이상음악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생일상을 받은 윤이상선생



새 노래작곡에 여념 없는 윤이상선생(1992년)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오른 재중동포대표단 성원들



삼지연대기념비를 참관하는 해외동포대표단들



통일애국에 바친 삶 영생으로 빛내주시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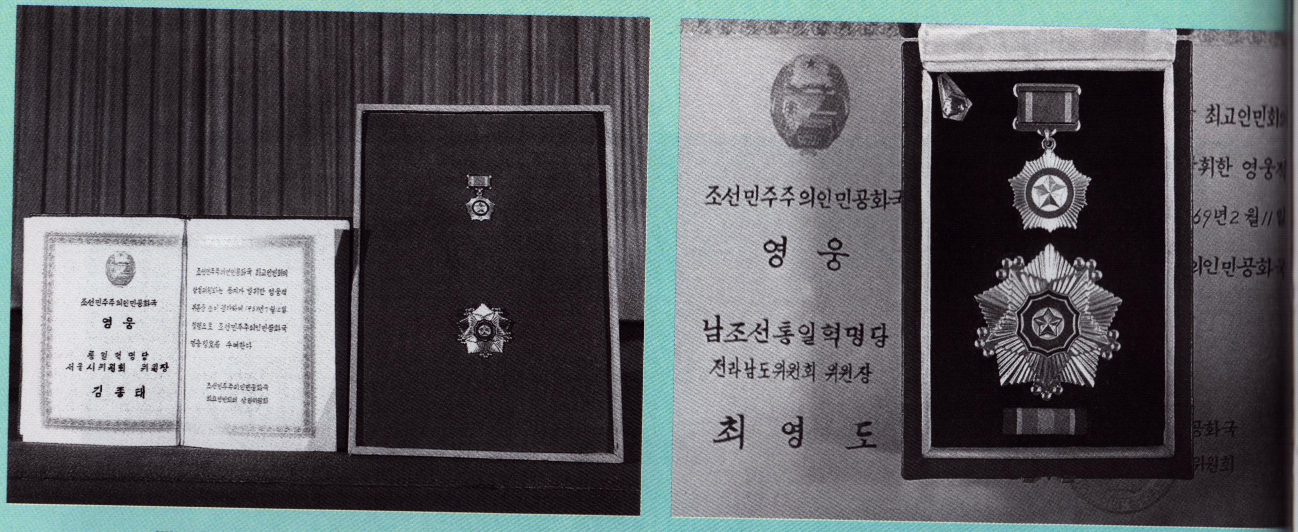
《우리는 …조국통일에 공헌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민족의 이름으로 높이 평가할것입니다.》

김 정 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새롭게 꾸려 진 애국렬사릉을 돌아 보시였다.
〔주체87(1998)년 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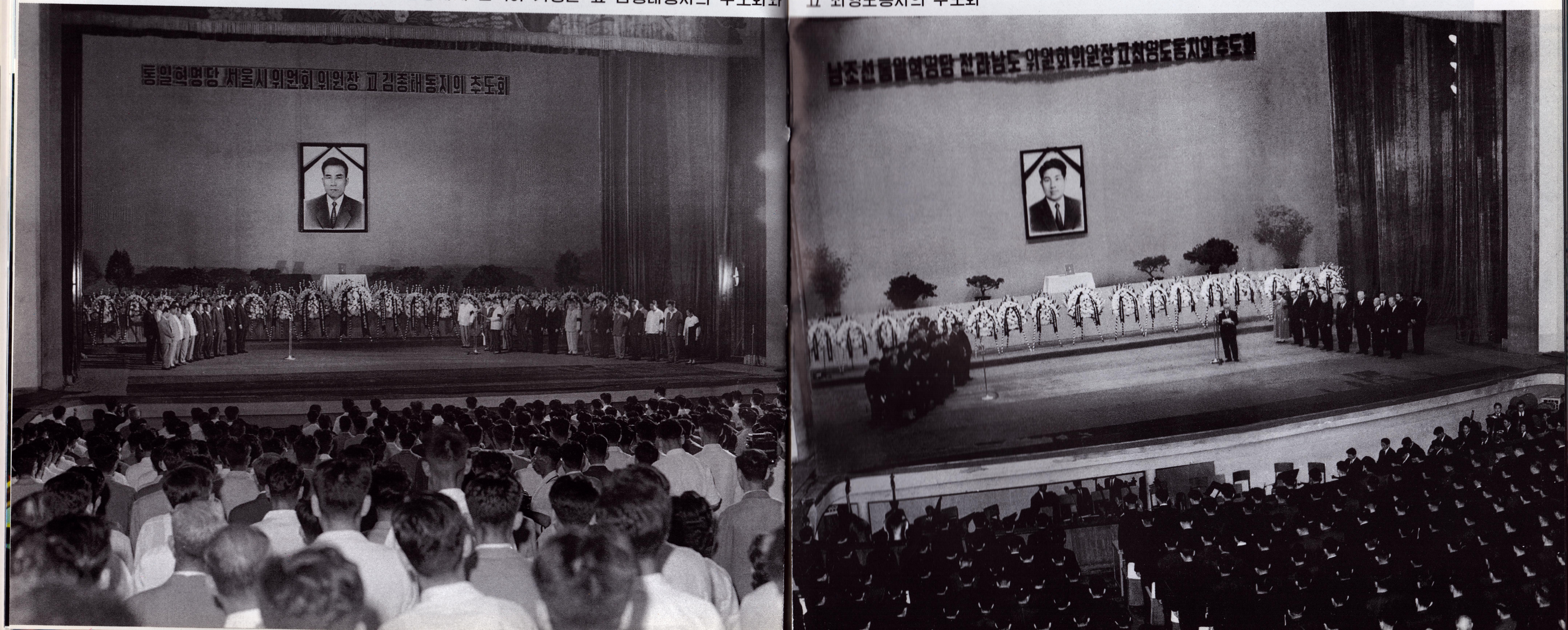
통일애국의 길에서 장렬하게 희생된 고 김종태, 최영도동지들에게 수여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증서와 금별메달 및 국기훈장 제1급

한없이 숭고한 의리와 덕망을 지니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을 위하여 한목숨 서슴없이 바친 통일애국투사들을 언제나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영생의 언덕에 높이 세워 주신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열렬한 통일애국투사들이였던 김종태, 최영도동지들의 희생을 두고 못내 애석해 하시며 전국적인 추도식을 거행하도록 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후세에 길이 전하도록 하여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숭고한 의리에 받들려 그들의 이름과 투쟁업적은 조국통일운동사에 길이 빛나고 있다.

평양에서 엄숙히 거행된 고 김종태동지의 추도회와 고 최영도동지의 추도회





평양에서 엄숙히 거행된 고 문익환목사의 추도회

최덕신선생의 유해를 애국렬사릉에 안치하는 의식에 참가한 각계층 근로자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 고 한덕수동지의 추도회에 보내신 화환



고 한덕수의장의 추도회에 참가한 각계층 근로자들



애국렬사릉에 세워 진 고 한덕수의장의 묘비



고 한덕수의장의 유해를 애국렬사릉에 안치하는 의식에 참가한 고인의 유가족들과 각계 인사들



애국렬사릉을 돌아 보는 남조선《범민련》 대표들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련합》 대표들





애국렬사릉에 세워 진 김월송선생과 조소앙선생의 묘비

애국렬사릉을 찾아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는 남조선통일음악회 대표들





애국렬사릉을 찾은 《한총련》 대표



통일애국투사 성시백동지의 유해가 안치된 애국렬사릉을 찾아 은혜로운 어버이장군님께 충성 다할 결의를 다지는 고인의 후손들



(아쏘크) 고 강일 위원장의 추도회에 보내주신 화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

고 강일 위원장의 추도회에 참가한 각계층 근로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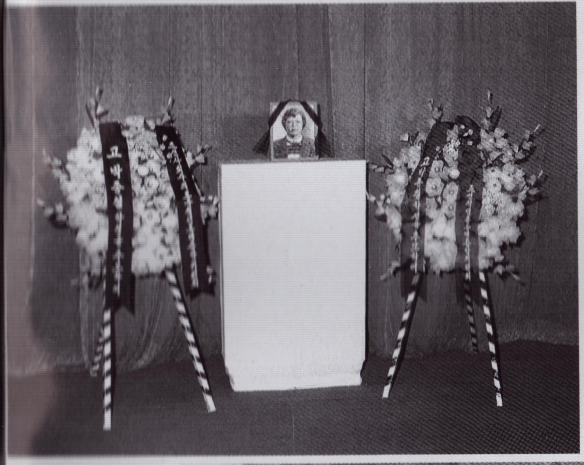
남조선의 애국학생 한영현을 명예학생으로 등록한 김책공업종합대학 기계제작학부를 찾은 《전대협》 대표 림수경학생

남조선청년학생들이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싸우다 희생되였을 때 누구보다 가슴 아파 하신분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그들의 추도식을 엄숙히 거행하도록 하시고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들에 명예학생으로 등록하도록 하시여 통일애국에 바친 그들의 청춘을 영생으로 빛내여 주시였다.



김형직사범대학에 명예학생으로 등록된 남조선의 통일애국학생 박혜정, 리재호에게 수여한 졸업증서를 보고 있는 《한총련》 대표들





평양에서 엄숙히 거행된 남조선의 애국학생 고 박종철의 추도회



〔주체82(1993)년 7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리인모동지와 상봉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신념과 의지의 화신인 리인모동지를 만나주시였다.
〔주체82(1993)년 7월〕



의사들의 검진을 받으며 판문점을 넘어 서는 신념과 의지의 화신인 리인모동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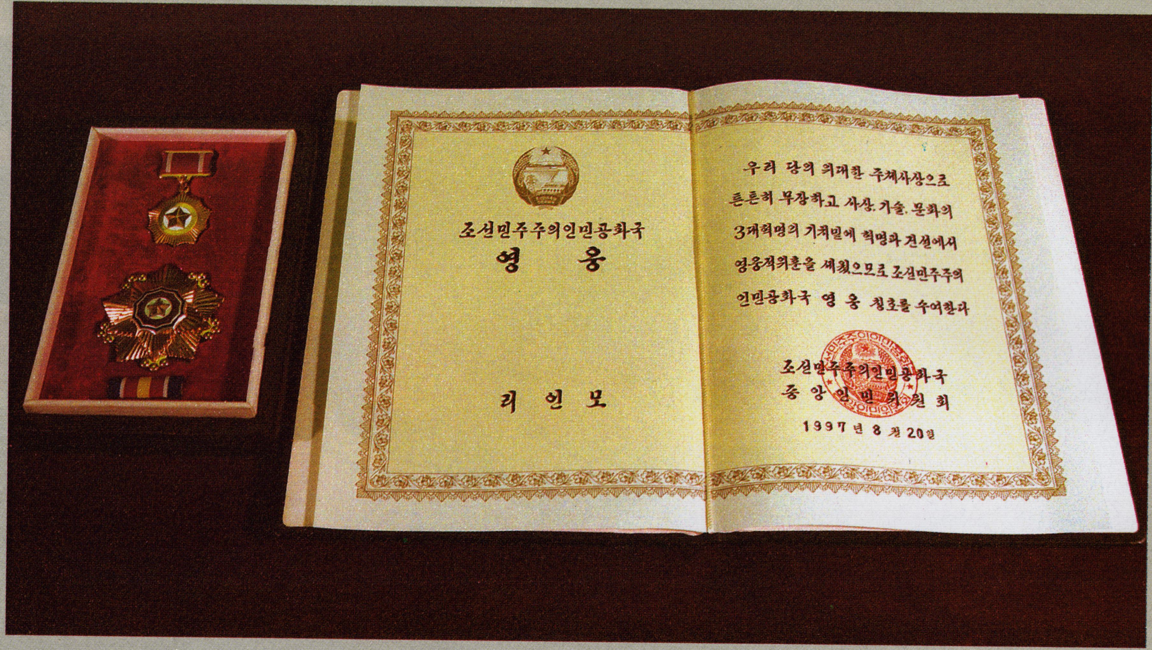
…
저에게 행운을 주신분은
위대한 인간이신
은혜로운 **김정일**, 당신이옵니다

정녕 넘지 못할 분단선을 뚫고
죽은 몸을 꽃수레에 태워 오신
당신이옵니다
수령님곁에 저를 세워 주시고
친히 슬하에도 불러 주신 당신이
옵니다

하기에 내 오늘
운명에 대하여 말하려고 합니다
저의 운명은 자애로운 당신
민족과 인류의 운명도 위대한 당신

저는 심장으로 말합니다
거룩하신 **김정일**, 당신은
진정 운명의 《신》이십니다
둘도 없는 우리 운명의 구세주이
십니다

(신념과 의지의 화신인 리인모동지의 시
《나의 운명을 두고》중에서)



리인모동지에게 수여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증서와 금별메달 및 국기훈장 제1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선물을 받아 안은 리인모동지와 부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생일 80돐 선물상을 받아 안은 리인모동지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오른 리인모동지와 그의 가족들



위대한 장군님의 친필비가 모셔 진 모교를 찾은 리인모동지



리인모동지의 고향방문을 열렬히 환영하는 파발리인민들



판문점을 넘어 서는 63명 비전향장기수들

주체89(2000)년 9월 2일 7천만 온 겨레의 관심과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63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이 어머니조국의 품,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품에 안기였다.

이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동지적사랑과 열화 같은 의리심이 낳은 세계사적사변이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남조선에 있는 비전향장기수들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그들을 데려 오시기 위하여 온갖 조치들을 다 취해 주시였으며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에 비전향장기수송환문제를 밝히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들이 어머니조국의 품에 안긴 다음에는 비전향장기수들을 데려 왔으니 마음이 놓인다고, 이제는 그들이 청춘을 되찾고 여생을 불편없이 보내도록 하는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하시며 주실수 있는 사랑과 은정을 다 베푸시여 삶과 행복의 최절정에 내세워 주시였다.

수십년동안 헤여 졌던 가족, 친척들과 감격적인 상봉을 하는 비전향장기수들















불굴의 통일애국투사들이며 민족의 장한 아들들인 비전향장기수들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





비전향장기수 63명에게 조국통일상을 수여하는 의식이 만수대의사당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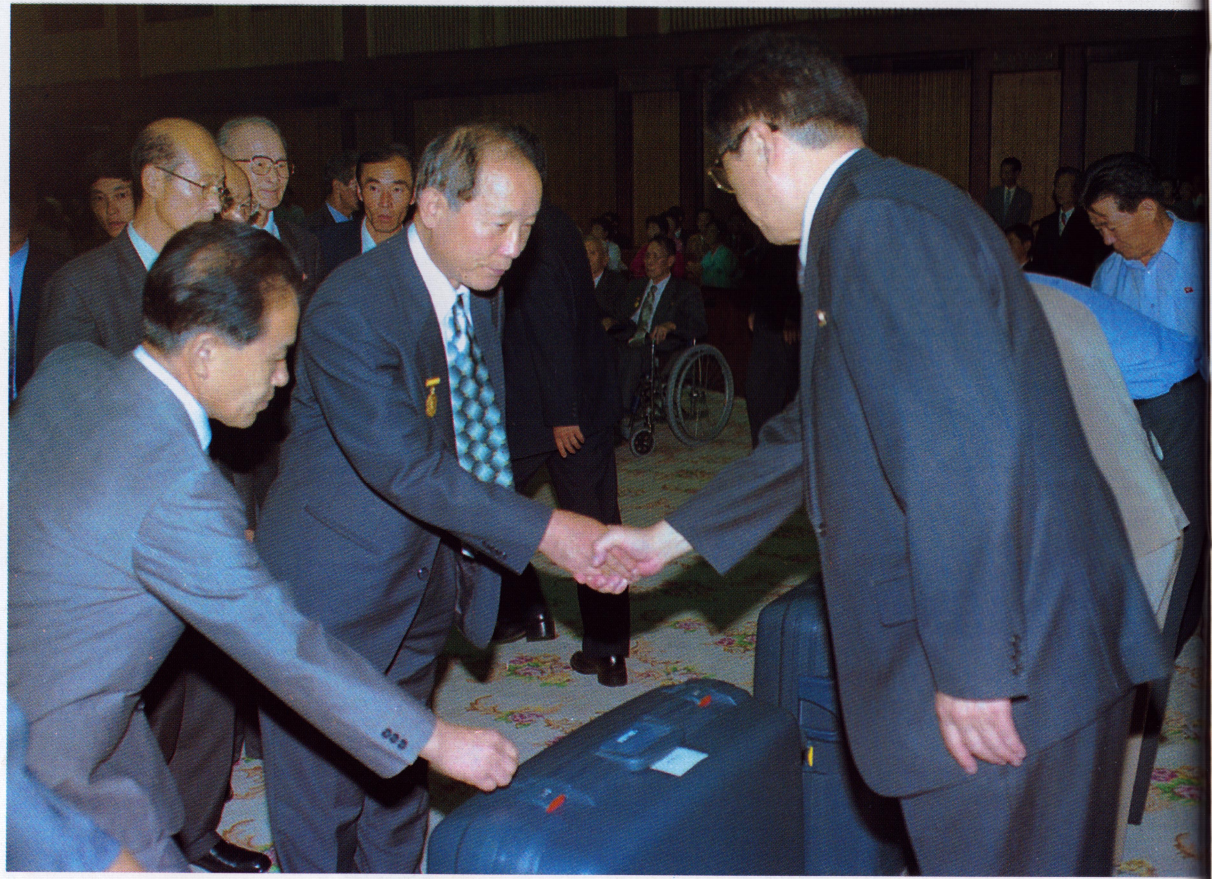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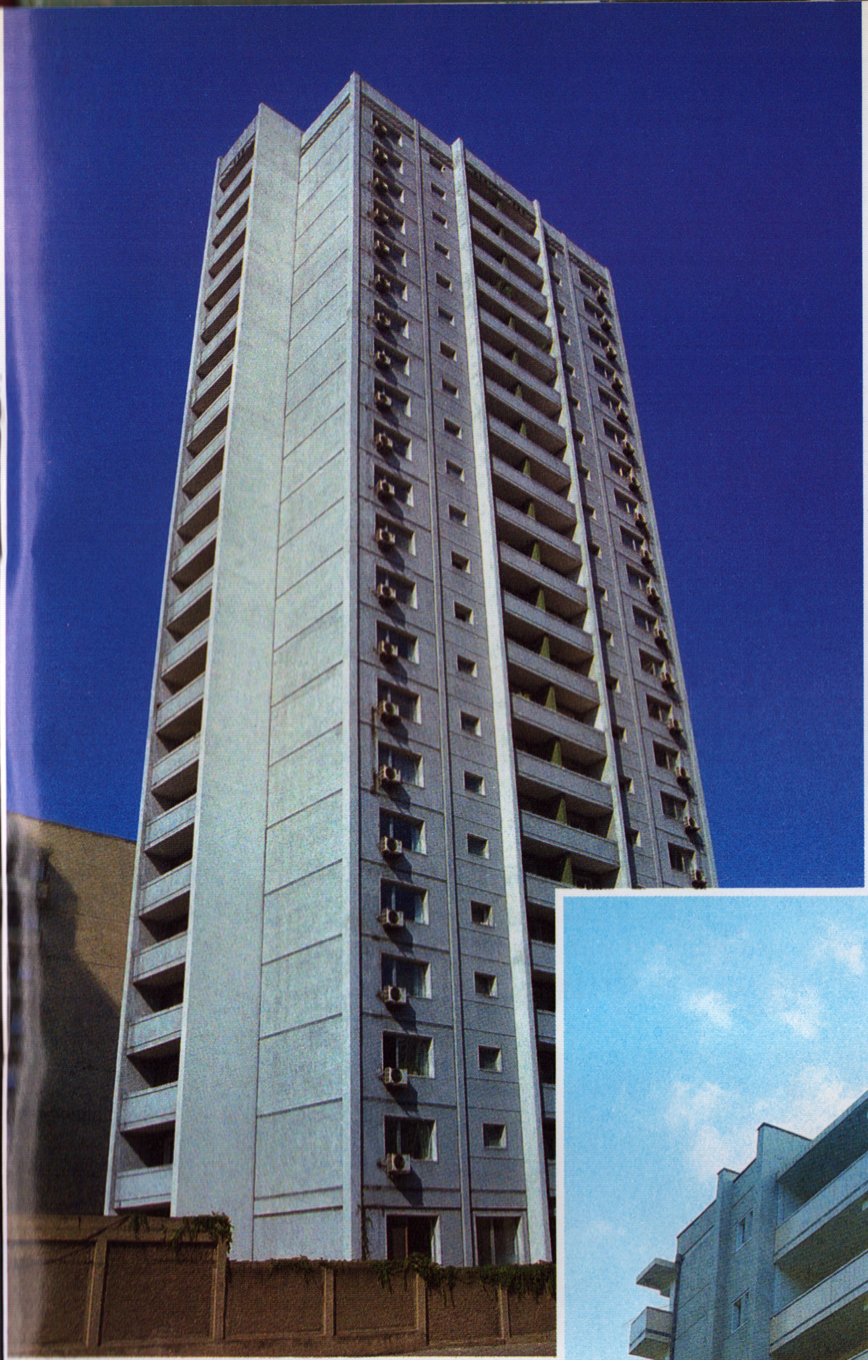




위대한 장군님께서 비전향장기수들에게 보내주신 귀중한 보약들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생활필수품을 전달 받는 비전향장기수들





위대한 장군님께서 비전향장기수들에게 배려하여 주신 고급문화주택



위대한 장군님께서 비전향장기수 김선명동지(우)와 함세환동지(아래)에게 보내주신 선물결혼상



충성의 꽃바구니를 정성 다해 마련하고 있는 비전향장기수 조창손가정





묘향산 보현사를 참관하는 비전향장기수들



가족들과 함께 묘향산에서 휴식의 한때를 즐기는 비전향장기수들 (우와 아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비전향장기수 고 리종환동지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주시였다.



고 리종환동지의 유해를 애국렬사릉에 안치하는 의식에 참가한 각계층 근로자들



애국렬사릉에 세워 진 고 윤용기동지의 묘비



애국렬사릉에 세워 진 고 리종환동지와 고 윤용기동지의 묘비를 찾은 비전향장기수들과 남조선대표들

송환 1돐기념 방송야회무대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은혜로운 어버이사랑과 은정에 대하여 절절하게 토로하는 비전향장기수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을 우러러 열광적인 환호를 올리고 있는 각계층 근로자들





군중들의 열광적인 환호에 답례를 보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우리는 김정일장군을 좋아 합니다

(남조선의 한 시인이 쓴 서사시 《우리는 김정일장군을 좋아 합니다》 중에서)

－우리는 **김정일**장군을 좋아 합니다!
민심을 합쳐 찬가를 부르노라
김정일나라의 통일을 그리며
장군의 정치를 받을
우리 《4천만의 씨알모임》은

그래서 조국이였다 통일이였다
힘이였다
뭉침이였다
도의였다
사랑이였다
장군은 존엄이였다
…

뜻 있는 천하인생 다 반했노라
재벌도 류랑인생도
서울사람도 부산사람도

가는 길이 다른들 어떠랴
품은 뜻이 다른들 어떠랴
우린 반했노라 정치를 넘어
우린 반했노라 사상을 넘어
…

장군을
아, 참사랑의 리상정치를 베푸시는
애민철학의 푸른 하늘을 열어 놓은
인간배척의 장막을 걷어 올리고
우리는 좋아 하노라

천하유일의 애민정치에
사람을 가꿔 아름답게 다듬는
사람을 품어 강하게 키우고
우린 반했노라



통일의 어버이

구성 및 편집	림 영
사 진	김철남
	장희연
글	김명화
교 정	박 철
낸 곳	평양출판사
발 행	주체91(2002). 2